제 2강 인식론(認識論)

(epistemologia, epistemology, theory of knowledge, Erkenntnislehre)

1. 인식론의 형성과 시작

19세기 유럽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 E. Reinhold가 1832년 <인식의 이론 Theorie der Erkenntnis>이라는 말을 썼고, 비슷한 시기에 W.T. Krug이 '형이상학이라고도 불리었던 인간 인식에 관한 철학적 이론'이라는 의미로 <인식론Erkenntnislehre>이라는 말을 씀

1) 근대철학의 효시로 지칭되는 R. Descartes(1596~1650)로부터 시작

(1)"나는 어릴 적부터 얼마나 많이 거짓된 것을 참인 것으로 인정해 왔으며,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것이 얼마나 의심스러운 것인가를 이미 여러 해 전에 깨닫고, 따라서 내가 앞들에서 언제라도 확고부동한 지주점을 정립하고자 한다면, 일생에 한 번은 이제까지 내가 받아들였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최초의 토대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였다."(Descartes, Meditationes de prima philosophia, I, 1) —데카르트가 그의 저술 『제1철학에 관한 성찰』(1641)에서 서술한 이 자각에서 우리는 인식론의 발단을 본다.

(2) 이 자각으로부터 성찰을 시작한 데카르트가 얻은, 아르키메데스의 지렛점으로 비유되는, 모든 참된 인식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최초의 토대는 다름 아닌 인식 작업을 수행하는 '나' 자신이다. 이 확실한 인식의 출발점을 발견했다고 자부한 데카르트 자신은 그러나 인식론을 본격적으로 전개시켰다기보다는 모든 인식이 기초할 만한 근거를 이용하여 고대 이래 중세를 거치면서 여전히 '철학 즉 학문'의 중심 과제였던 형이상학적인 문제들, 예컨대 신의 존재 증명, 영혼의 불멸성과 자유 그리고 세계의 실재 구조를 밝히는 데로 다시금 되돌아갔다.

2) 로크(J. Locke, 1632~1704)의 『인간지성론』(1690)에서 본격 시작

(1) 로크는 이 저술에서 인간 지성이 도달할 수 있는 참된 인식을 연구하면서 이 인식의 기원(起源), 인식의 대상(對象) 및 내용(內容), 참된 인식 곧 진리(眞理)의 의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식의 한계(限界) 등을 차례대로 검토한다. 이 검토점들이 바로 오늘날까지의 인식론의 중심 주제들이다.

(2) "믿음, 의견 그리고 동의의 근거 및 정도와 함께 인간 인식의 기원, 확실성, 그 범위를 탐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3) 현대 인식론적 쟁점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는 칸트(I. Kant, 1704~1804)

(1) 칸트의 『순수이성비판』(1781)도 이 로크적인 합의에 동참한 결과이다. 칸트 역시 참된 인

식을 거론하기에 앞서, 도대체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A805=B833)라는 물음이 물어지고 대답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한다. 그의 ‘이성 비판’은 곧 인식하는 나 즉 이성 스스로 자신이 인식할 수 있는 인식 대상, 인식 범위, 인식 한계를 규정함이다. 이런 문제 연관에서 오늘날 인식론은 ‘인식 비판’(Erkenntniskritik)이라고도 일컬어진다.

2. 인식론의 쟁점들

인식론은 ‘인간에게서 인식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물으면서, 인식 일반에 대해서 1) 인식의 기원, 2) 인식의 대상 및 내용, 3) 참된 인식(진리)의 의미, 4)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 등을 해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철학적 노력의 이상은 언제나 진리 자체의 획득이지만, 현재까지의 철학적 작업의 결실은 제기된 철학적 물음에 대한 영구불변적인 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같은 답을 얻으려는 시도들이듯이, 인식론의 문제들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다. 동일한 문제에 관해서 대립하는 여러 ‘설’이 있고, 그 ‘설들’이 상대의 약점을 자신의 강점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서로 양보 없이 맞서고 있다는 것은, 그 문제가 아직도 미결인 채 탐구 중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것이다.

3. 인식의 기원에 따른 인식론의 입장들

1) 이성주의/이성론/합리론(rationalism)

- 감각을 인식의 원천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을 그 원천으로 보는 입장
- 참된 인식은 선험적(a priori) 원리 또는 이성에 내재하는 원리(immanent principle)에 따른다고 봄
- 수학(기하학)을 지식의 모범으로 간주
- 사고의 최고 원리를 모순율(矛盾律, principium contradictionis)로 생각
- 이성론자들은 보통 이런 사고의 최고 원리로서 이 모순율과 “근거 없이는 아무 것도 없다(Nihil est sine ratione)”는 근거율 (혹은 충족이유율, principium rationis sufficientis)을 든다. (Leibniz, Monadologie, §31~§36 참조)

※ 플라톤의 상기설

(1) 동굴의 비유

- <국가>편에 있음
- 현상과 본질의 세계를 구분

- 진리의 획득이 가져오는 고통과 무지에 의한 죽음을 예고

(2) 선의 비유

- episteme와 doxa의 구분

- 인식론과 존재론의 상관관계

(3) 노예소년의 비유

- anamnesis(상기): 선천주의/이성주의의 효시

※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와 선천주의

-방법적 회의: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명석판명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 의심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 본다.

*특수지에 대한 회의: 감각을 통해 얻게 되는 지식이 특수지이며, 이는 명석판명할 수가 없다. 예) 물 속에서 구부러져 보이는 막대; 감각은 우리를 속인다.

일반지에 대한 회의: 까마귀는 검다와 같이 귀납적 방법을 통해 얻는 지식으로 이런 지식은 귀납의 갖는 한계(현재까지의 관찰 결과만을 고려했을 때 검었다에 불과한 지식이며, 이런 측면에서는 명석판명한 혹은 절대타당한 지식이 될 수 없다)와 꿈의 논증(까마귀가 검지 않고 흼에도 불구하고 검게 보이는 꿈을 꾸고 있다)을 통해 의심이 가능하므로 명석판명한 지식이 될 수 없다.

보편지에 대한 회의: 수학적 진리와 같은 보편지는 꿈을 통한 논증으로도 의심하기 어렵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악마의 가설이다. 실제로 2+5=6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악마에 의해 7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런 방식을 통해 보편지 역시도 회의가 가능하므로 명석판명한 지식이 될 수가 없다.

-Cogito ergo Sum: 방법적 회의를 통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각하고 있는 나'이다. 아무리 전능한 악마라 할지라도, 생각하고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마저도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속여야 하는 대상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자아는 육체적인 자아가 아니라 오직 정신적인 자아일 뿐이고, 사고하기를 멈추고 있는 자아가 아니라 항상 사고하고 있는 자아이다.

- 본유관념의 도출: 세계와 나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관념은 경험으로부터 획득된 것이라 할 수 없다.

-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 따라서 인간은 그가 만약 존재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유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을 인간으로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유, 즉 이성에 있다.

2) 경험주의/경험론/감각주의(empiricism/sensationalism)

- 감각(경험)을 인식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입장

- 인간의 마음은 감각 경험 이전에는 “백지”(白紙, tabula rasa, white paper)라고 주장
- 경험주의 원칙은, “감각 중에 있지 않던 어떠한 것도 지성 중에 있지 않다.”(Nihil est in intellectu, quod non fuerit in sensu)
- 철저한 경험론에 의하면, 인간의 사고 기능은 순전히 경험에 의존적이며, 일견 필연적인 사고의 법칙 같은 것도 습관적인 경험의 산물에 불과하다.(Hume,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sect. V, part Ⅱ 참조)

3) 초월론/초월철학/비판철학(transcendentalism/transcendental(critical) philosophy)
- 칸트에 의해 대변
-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식 모두가 바로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Kant, K.d.r.V., B1)
- 한편으로 경험론의 주장을 수용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이성론의 입장에 선다.
-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 인간 인식능력의 한계를 규명함으로써 인식대상의 가능조건을 해명
- 인간은 자연의 입법자다.

4. 진리론

인식이 무엇에 대한 인식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무모순성과 체계 내 일관성을 진리의 척도로 보는 정합설(整合說, coherence theory), ‘인식의 사실과의 일치’를 진리로 보는 대응설(對應說, correspondence theory),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을 진리의 의미로 보는 실용설(實用說, pragmatism), 인식하는 자들 사이의 합의 내지는 일반적 의사소통을 진리의 기준으로 보는 상호 주관성 이론(相互主觀性理論, Intersubjektivitättheorie) 내지는 합의설(合意說, Konsensustheorie) 등이 각기 특장을 가지고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운다.

1. 대응설

1)정의: 우리의 판단 또는 관념이 객관적 실재와 그대로 대응 또는 일치하면 진리라는 입장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것이 진리이다”
감각적 모사설 - 감각적 경험에 의해 실재와 관념의 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성적 모사설 - 감각이 아닌 이성적 직관에 의해서 그 자체로 명백하고도 확실한
즉 명증적 진리를 확인할 수 있다 - 데카르트(R.Descartes)
예) “두 원의 접점은 하나이다”라는 판단 - 수학적, 기하학적 진리
플라톤(Platon) - 현상과 본질이라는 이원론적 구도
감각적 현상 배후에 참된 본질 - 이데아(Idea)에 대한 인식은

예지적 직관(noein)에 의해서만 가능

2) 대응설 비판

(1)감각적 경험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판정 결과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2)관념과 실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보편적 일반지로서 전칭판단의 경우에 원천적으로 그 기준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다.

2. 정합설

1) 논리적 무모순성과 연역의 보편성

정합설적 진리관 - 기성의 자명한 판단에 맞아떨어지면, 정합되면 다시말해 모순되지 않 으면 진리이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

(1) 판단과 판단의 정합관계의 판가름 -사고의 원리로서 모순율과 그에 기초한 연역의 규칙 - 이성의 선천적 규칙- 순전히 논리적인 이성적 사유로써 판정

(2) 보편적 진리의 확고한 근거와 기준을 제공

(3) 여러 지식들을 상호 모순 없이 체계화하는 기본원리 - 학문의 체계성, 보편성의 기초

2) 정합설 비판

(1) 최소한 정합설은 최상위 판단의 진리성을 설명할 수 없다.

(2) 결국 정합설은 최상위 판단이 진리임을 보장해주는 정합설 이외의 다른 진리관을 추가적으로 요구

(3) 괴델의 불완전성의 정리, 에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 공리로부터 증명할 수 없는 (정합한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참된 정리가 존재한다.

5. 인식(능력)의 한계 문제

인간의 인식 능력은 구조적으로 일정 불변하고 한계를 가지며 일정한 대상 영역을 넘어서면 아무런 의미 있는 인식도 갖지 못한다는 인식 형식의 한정 이론(限定理論)과 인식 내용의 유한성 이론(有限性理論 또는 不可知論, agnosticism)과 인간의 인식 능력이 현재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단계적으로 진보하기 때문에, 원리상 인식의 한계는 없다는 인식 진화론(認識進化論, evolutionäre Erkenntnistheorie) 또는 변증법(Dialektik)적 이론(辨證法的 理論)의 대립이 있다.

대상에 대한 현재의 인간의 인식이 완벽하다고는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지론자는, 인간은 원리상 그 인식 능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오로지 현상만을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변증법론자들은, 우리의 인식은 많은 착오를 겪으면서 종국에는 진상(眞相)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

헤겔(G. W. F. Hegel, 1770~1831)에 의하면, 대상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주관이라고 하는 인식자에 의존하는 한, 그리고 이 인식자가 신과 같은 완전함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그 인식은 언제나 착오일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한 인식자인 인간의 대상 인식은 그래서 반복되는 착오의 길이기도 하고 "회의(懷疑)의 길"이고 "절망의 길"(Hegel, Phänomenologie des Geistes, Gesammelte Werke[GW], Bd. 9, hrsg. v. W. Bonsiepen/ R. Heede, Hamburg 1980, S. 56)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착오와 회의와 절망의 길은 의식이 그에게 다가오는 존재자를 관통하는 즉 경험(經驗)하는 길이며, 그 길의 종착점은 착오를 범하면서도 자기 교정 능력이 있는 의식이 마침내 존재자와 하나가 되는 지점이다. 이런 뜻에서 의식의 경험은 진리를 향상 "의식 자신의 도야(陶冶)의 역정(歷程)"이다.

인간의 인식의 수준이 이러한 만큼,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식의 원리에 대한 이론으로서 인식론도 논의의 도정에 있으며, 논제마다 서로 엇갈리는, 서로 얽혀 있는 숱한 학설들로 구성되어 있다.